

‘승리 DNA’ 깨운 광주FC ‘안방 불패’ 잇는다

2주간의 ‘재충전 시간’ 끝나고
오늘 광주서 대전과 25라운드
이정호 감독 부임 후 6경기 무패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광주FC가 안방에서 연승을 잇는다. 광주는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 1 2023 25라운드 홈경기

에 나선다. 팀K리그와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맞대결 일정으로 잠시 쉬어갔던 K리그. 광주는 최고의 분위기에서 재충전을 끝냈다. 휴식기에 앞서 치러졌던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광주는 두현석의 시원한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면서 5위(9승 7무 8패·승점 34)에 자리했다. 강원-제주로 이어졌던 강행군에 이어 안방에서 치러진 대구전에서도 무승부에 그쳤던 광주는 수원 원정을 통해 승리 DNA를 깨웠다. 무더운 날씨에 뻘뻘한 일정을 소화했던 광주는 2주간의 휴식기를 통해 체력을 채우고, 승리를 위한 전술도 가다듬었다. 측면 수비수 두현석이 공격 중심으로 눈길을 끈다. 두현석은 수원FC전에서 환상적인 하프 발리 슈팅을 선보이는 등 올 시즌 2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순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여유를 이어 광주 순위 싸움의 동력이 되겠다는 각오다. 이순민은 팀K리그 유니폼을 입고 후반 추가 시간에 3-2 승리를 확정하는 극적인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광주팬들은 물론 국내 축구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휴식기를 끝낸 광주FC가 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휴식기에 앞서 치러진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이순민이 골을 넣은 두현석(13)과 포옹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은 뒤에는 6번의 맞대결에서 2승 4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승리는 모두 안방에서 장식했다. 하지만 대전은 만만치 않은 상대다. 대전은 주세종, 오재석, 이진현, 이창근 등 국가대표 출신 스타들은 물론 티아고, 안톤, 레안드로, 구백으로 구성된 외국인 선수들로 8승 9무 7패(승점 33)를 기록하면서 광주를 1점 차로 쫓고 있다. ‘샷별’ 배준호의 활약도 눈에 띈다. 대전은 최근 5무 1패로 부진했지만 앞선 라운드 대구FC와의 홈

경기에서 배준호의 프로 데뷔골로 1-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기본 좋은 승리와 함께 재정비 시간을 보냈던 광주와 대전, 어느 팀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경기 무패행진을 멈춘 전남드래곤즈는 안방에서 승점 사냥을 재개한다. 전남은 5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부천FC를 상대로 K리그2 2023 25라운드 맞대결을

맞는다. 전남은 지난 7월 29일 성남FC와의 2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2패를 기록했다. 성남전에 앞서 5경기에서 15득점을 만들면서 뜨거운 질주를 했던 전남이 무패행진이 중단됐지만 0-2로 뒤진 후반 30분 이규혁이 성남 골대를 가르면서 팀은 9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최근 안방에서의 흐름도 좋다. 전남은 최근 홈 8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하면서 무패행진을 펼치

고 있다. 올 시즌 9승 4무 9패(승점 31)로 7위에 자리한 전남. 부천은 10승 5무 7패(승점 35)로 전남에 앞서 6위에 있다. 최근 분위기는 전남이 앞선다. 부천은 앞선 부산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다. 전남이 뜨거운 화력으로 부천전 승리를 만들 수 있을 지 팬들의 시선이 광양전용구장에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5호 황!

선두타자 홈런 샌디에이고 김하성
2안타 2볼넷 1홈런 1타점 3득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8경기 만에 짜릿한 홈런 손맛을 보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김하성은 3일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2볼넷 1홈런 1타점 3득점으로 필필 날았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81에서 0.284(345타수 98안타)로 올라갔고, OPS(출루율+장타율)도 0.822에서 0.838로 치솟아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공수 겸장’ 내야수로 우뚝 섰다. 김하성의 홈런포는 1회 첫 타석부터 나왔다. 콜로라도 선발 카일 프리랜드의 3구째 시속 90.5마일(약 146km)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왼쪽 담을 쓴살같이 넘어가는 홈런으로 연결했다. 비거리 130m짜리 대형 홈런이었다. 지난달 25일 피츠버그전 2홈런 이후 잠시 멈췄던 홈런 생산을 재개한 김하성은 시즌 15홈런째를 기록했다. 시즌 4번째 선두타자 홈런이다. 이미 22차례 도루에 성공한 김하성은 홈런 5개만 추가하면 2009년과 2010년, 2013년 세 차례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한 추신수(SSG) 이후 한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해당 기록을 달성한다. 홈런을 터트린 뒤에도 김하성의 방망이는 멈추지 않았다. 3회에는 1사 후 볼넷을 골라낸 뒤 후안 소토의 시즌 23호 2점 홈런 때 홈을 밟아 득점에 성공했다. 이 볼넷으로 김하성은 지난달 23일 디트로이트 전 이후 이어오고 있는 멀티 홈런 행진을 11경기로 늘렸다. 5회에는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홈에 돌아오지는 못했고, 7회에는 내야 땅볼로 물러났다. 9회 1사 2루에서 맞이한 마지막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이날 경기 4번째 출루에 성공했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3점 홈런 때 다시 홈에 들어왔다. 콜로라도 마운드를 폭격한 샌디에이고는 11-1로 승리하고 시즌 54승(55패)째를 거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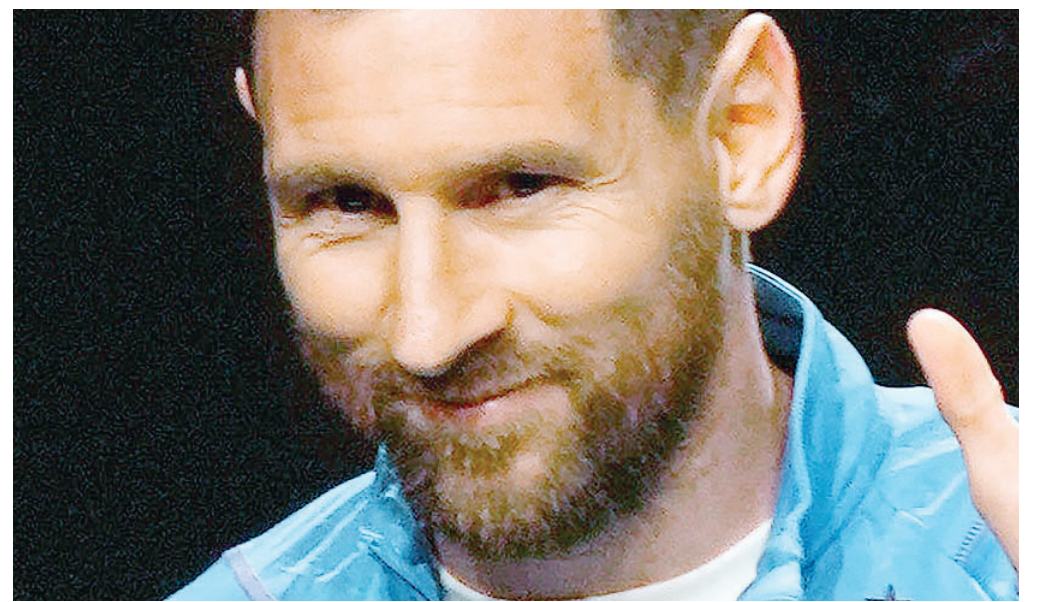


더 보여줄게 없다

45세 ‘전설의 거미손’ 부폰, 현역 은퇴 선언
28년간 975경기 출전·505경기 무실점 기록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의 ‘거액 러브콜’을 거절한 이탈리아의 ‘레전드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45)이 마침내 28년 동안의 현역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부폰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여러분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모든 것을 줬고, 저도 여러분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활약이 담긴 짧은 영상을 올렸다. 이로써 1995년 ‘17세 295일’의 나이로 이탈리아 세리에A 파르마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부폰은 28년 동안 프로 공식전 통산 975경기 출전과 남자 골키퍼 역대 최다인 505경기 클린시트(무실점) 기록을 남기고 팬들과의 작별을 알렸다. 부폰은 파르마와 2024년까지 계약했지만, 지난 시즌 부상에 고전하며 19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자 은퇴를 결심했다. 2018년 이탈리아 대표팀 유니폼을 먼저 반납

한 부폰은 A매치 통산 176경기에 출전해 이탈리아 선수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도 남긴 바 있다. 부폰은 프로 데뷔 이후 2018-2019시즌 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뛴 것을 빼면 사실상 세리에A에서 자신의 축구 인생을 보냈다. 그는 2001년 7월 파르마를 떠나 세리에A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골키퍼 인생의 절정기를 보냈다. 유벤투스에서 만 총 19시즌을 활약하며 ‘레전드 거미손’으로 인정받았다. 세월의 무게에 부담을 느낀 부폰은 2021년 6월 43세의 나이로 친정팀인 파르마로 이적했다. 파르마는 세리에B(2부리그)에 속해 있지만 부폰은 자신이 프로에 데뷔했던 팀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결심을 세웠고, 마침내 28년 만에 골키퍼 장갑을 반납했다. /연합뉴스



아직 보여줄게 많다

36세 메시, 미프로축구 3경기만에 5골 맹활약
리그스컵 32강 올랜도 시티 SC전 풀타임 소화

리오넬 메시(36·아르헨티나)가 미국프로축구 인터 마이애미CF 유니폼을 입고 불과 3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는 맹활약을 펼쳤다. 마이애미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의 DRV PN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리그스컵 32강전 올랜도 시티 SC와 경기에서 3-1로 이겼다. 90분을 모두 뛴 메시는 이날 2골을 넣어 팀 승리를 이끌었다. 메시는 7월 22일 리그스컵 조별리그 크루스 아슬(멕시코)과 경기를 통해 마이애미 데뷔전을 치렀고, 이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프리킥 결승골을 터뜨렸다. 또 7월 26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리그스컵 조별리그에서는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4-0 대승에 앞장섰다. 메시가 미국 진출 후 90분을 모두 뛴 것은 이날 올랜도와 경기에서 처음이다. 크루스 아슬전에서는 후반 교체 선수로 들어

갔고, 애틀랜타와 경기에는 후반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다. 세 경기에서 5골을 몰아친 메시는 올해 리그스컵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리그스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프로축구팀들이 출전해 경쟁하는 컵 대회로 마이애미는 7월 16강에서 FC 달러스를 상대하게 됐다. 마이애미는 메시가 출전하기 전에는 리그 경기에서 11경기 연속 승리 없이 3무 8패를 기록했으나, 메시가 뛴 이후 세 경기를 모두 잡아냈다. 메시는 이날 전반 7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파고틀며 로버트 테일러의 패스를 가슴으로 받아냈고, 곧바로 원발 발리 슈팅으로 올랜도 골문을 흔들었다. 팀이 2-1로 앞선 후반 27분에는 조세프 마르티네스의 패스를 받아 이번엔 오른발 발리 슈트로 3-1을 만들었다. /연합뉴스